

마리아, 요셉처럼, 그리고 샤미나드 신부와 함께
우리의 일상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하는 목상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재 상황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고 탈(脫)그리스도교화되어가는 이 사회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 됩시다.

봉헌된 평신도로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했고, 꾸준히 대답을 합니다.

** 우리가 매일의 “예”를 주님께 실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직업적 활동을 하고, 가족적 결속을 맺고, 우리의 주위 환경 속에 있으며, 여러 가지의 직업과 헌신을 하는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생활의 환경에서, --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병과 싸우고, 나이를 먹어가는 속에서 -- 그리고 우리의 생을 바치는, 그리고 어떤 때는 눈에 띄지도 않는 바로 그 속에서, 그런 **평범한 일상 생활 속에서**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소외받고 잊혀지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각자는(성모님까지도 확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가족, 이웃, 사회적 약자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처분에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습관적인 관계 속에서 또는 자선 단체의 틀 안에서 봉사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재 상황에 대한 목상.

1800 년 망명에서 돌아오셨을 때에 복자 샤미나드 신부는 사도적 선교사라는 호칭을 요청하셔서 받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곳에 믿음의 햇불을 새롭게 밝혀야 하는 절박한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리아니스트는 크리스찬을 증가시키고 신앙 교육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샤미나드 신부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세례의 은총에 따라 살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세례로 인하여 모든 크리스찬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샤미나드 신부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을 얻고, 믿음이 살아질 때 이 믿음은 전염되는 것입니다.에 로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때이건 전쟁 때이건, 우리 사회를 약화시키고, 부패, 도둑질, 약탈, 매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 몰수 등 여러 이름을 가지고 갖고 있는 불행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자 샤미나드 신부께서 그의 시대에 적용했던 그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긴박하지 않습니까?

복자 샤미나드 신부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지 이론적이고,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 뿌리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가족은 옛 것을 벗어 버리고 복자 샤미나드 신부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알리앙스 마리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대로 하여라.”

동정 마리아여, 당신은 가나에서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대로 하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의 하인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고 내 아들이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여라.” 매일 당신의 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듣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소서! 당신께서 지나가실 때 바람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진정 예민한 귀를 저에게 주소서. 성령의 힘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작은 소망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하여 저는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위하여, 성부의 영광의 위하여, 그리고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저의 작은 돌을 가지고 오겠나이다. “당신의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아멘.



사명을 위한 우리의 봉헌

동정 마리아,
주님의 종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여,
우리는 당신께 대한 봉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왔나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봉헌을 새롭게 하여
당신의 사명을 도우려 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 삶 안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온전히 드리나이다.
당신과 함께 하고 당신처럼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하느님 왕국의 하녀이신 당신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영에 가득 스며들게
당신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의 이름과 사랑을 선포하여
그들이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당신의 아들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봉사하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 하느님 자녀들의 가족이 자라게 하소서.
아멘.

Manuel Madueño, SM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을 따름, p. 275